

인터넷방송 '佛心' 항해

불교프로그램 불자 네티즌에 인기

M2 중광스님 선화·달마상등 전시

KBS 황룡사·무령왕릉 동화상 감상

BUDDHISM KOREA 불교 종합포교망 추진중

무한한 정보의 바다 인터넷에서 '달나지 않는 방송'을 추구하는 인터넷 방송에도 불교관련 프로그램들이 선보여 불자 네티즌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7월에 개국한 우리나라 최초의 유선망 독립 인터넷 방송국 'M2' (<http://www.m2station.com>)를 방문하면 중광스님의 간결하면서도 불교적인 예술세계를 접할 수 있다. M2의 디지털 갤러리에는 '종이에 역'을 비롯한 중광스님의 그림 24점, 경위예술 사진 4점, 달마상 등 조각품 4점 등 총 32점이 방문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M2는 주로 판서나 음악 토크쇼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는데 8월에는 우리민족서도 등기 운동본부의 북소리 현창도 방송으로 선보였다.

M2의 개국 이후 공중파 방송에서도 인터넷 방송을 시작해 지금은 KBS(<http://kbsnt.kbs.co.kr>), MBC(<http://www.mbc.co.kr>),

SBS(<http://www.sbs.co.kr>), EBS(<http://edunet.nmc.nm.kr>), YTN(<http://www.ytn.co.kr>) 등 5개에 달하는 방송사에서 TV,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인터넷에 올리기에 이르렀다.

KBS 인터넷 방송을 방문하면 동영상으로 KBS 프로그램을 기호에 따라 보는 것이 가능하다. 다큐멘터리로는 '10대 문화유산 시리즈' 중 '황룡사'와 '무령왕릉' 두편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다큐멘터리 '황룡사'는 그래픽 황룡사의 세부 요소조도를 살릴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서 신라시대 황룡사의 웅장한 모습과 9층탑의 신화를 재현했다고 평가할 만하다.

MBC에서는 다큐멘터리 '700년전의 약속' '황새' 등 역사와 환경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보여준다. '죽도'나 '일식생존계' 등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뛰어난 프로그램들을 항시 접



◇인터넷방송인 M2에 나오는 갤러리의 중광스님 작품전.

속해 볼 수 있어 주목된다. 불교 방송에서도 불교TV와 불교계 언론사들과 공동으로 인터넷 방송 'BUDDHISM KOREA'를 추진하고 있다. 'BUDDHISM KOREA'는 불교방송 프로그램을 내보내는 것 외에도 교계 최초로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한 본사의 부다피어와는 링크해서 정보 공유를 하고 기타 교계 신문사와는 신문을 인터넷 상에 올려주는 형식으로 'BBS Magazine' 코너를 선보일 예정이다. '불교정보' 코너에는 한국의 사찰, 불교역사·인물, 인명록 등을 담고, '불교단체' 코너

는 불교 법인 및 신행단체 소개를 집중적으로 하게 된다. 현재 재건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교방송 관계자들은 "인터넷 방송은 불교포교에 첨단 정보매체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불교의 현대화와 대중화에 한 몫 할 것"이라며 불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을 호소했다. BUDDHISM KOREA는 앞으로 이미 인터넷 방송을 하고있는 다른 방송들과 어떤 식의 차별화 전략을 구사해 불교를 특화시킬 수 있을지에 따라 귀추가 주목되는 차세대 포교 전략이 될 전망이다.

김지연 기자

자비의 법륜 ② · <불>



“우리 애가 고아야? 어떻게 주부가 자식을 과자 한봉지 달랑 돌려 옆집에 내댄거져 두고 팔아가서 매일 살다시피 할 수가 있어? 귀가 시간은 또 어떻게? 도대체 나보다 일찍 들어 온 남편 며칠이야.” 남편은 기분이 상하다 못해 몹시 분한듯 큰 소리를 쳤다. 남편이 전날 밤엔 아무 말도 없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이 옆집에 팔아갔다고 하자 남편은 “네가 팔아갔어? 어떻게 팔아갔어? 어떻게 팔아갔어?” 남편은 “네가 팔아갔어? 어떻게 팔아갔어?” 남편은 “네가 팔아갔어? 어떻게 팔아갔어?”

었다. 내가 짚어 다니는 것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지도 모르겠다 싶어 남편에게 함께 참여할 것을 권유했다. 무엇이 그토록 사담들로 하여금 불교에 매달리게 하는 것일까 하는 궁금증 때문이었는지 남편은 뜻이기는 착 승락을 했다. 남편은 그날 낱생 처음 재등행렬을 구경했다. 우리 어느 곳이 좋을까 망설이다 언단 뒤에 자리를 잡았다. 그 순간 스님들이 교대로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을 독송하더니 마치 막으로 받아심경을 소리맞춰 독송했다. 남편은 연신 "도무지 무슨 소린지 알아 들을 수 없군"이라며 불평을 늘어 놓았다.

초파일 제등행렬에 참석 참회의 눈물 흘리는 남편 나는 거기서 부처님 모습을...



그림 · 이준석

를 따라하는 것이었다. 나는 깜짝 놀랐다. "내년에는 우리도 제등행렬에 함께 참여합니다. 불교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지기에 끼어 있는 사람들이 부럽군요." 군중 속에서 서 있는 남편에게서 나는 얼핏 부처님의 모습을 보았다. 목탁을 치며 마지막 불자가 광장을 다 빠져나갈 정도로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집안에 있던 불경을 뒤적이게 되었고, 경전을 조금씩 조금씩 열람해 나가기 시작했다. 나는 그 많은 법문을 접하면서도 미처 느끼지 못했던 회의를 남편을 통해 체험했다. 또 평소에는 불평만 늘어놓던 주위 환경 모두를 짐짓 너그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남편의 뜨거운 참회의 눈물은 태산이 무너지는 소리가 되어 부정적이고 불신으로 가득 차 고만했던 내 마음을 부처님께 돌려놓았다. 그 동안 일어났던 일들이 어찌된 불보살이 화두를 뜨거운 무쇠바위가 아니었을까 생각하면서 나는 오늘도 열심히 짚어 나가 부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린다.

김선희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계수동)

禪味 깃든 황남채 개인전

11월1일까지 김내현화랑... 시화집도 펴내



◇황남채작 '길'

길

누군가 내게 물었다
길을 가는 사람이냐고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 세상 가는 곳마다
모두 길이었으므로.

누군가 내게 물었다
길을 아는 사람이냐고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길이 이미
나를 알고 있었으므로.

누군가 내게 물었다
깨어있는 사람이냐고

나는

망설였다
이 세상 사람 누구나
깨어있는 것은 아니었으므로.

화가 황남채씨가 24일부터 11월 1일까지 청담동 김내현화랑(02-543-3267)에서 제2회 개인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황씨 특유의 유연한 선과 파스텔톤의 부드러운 색을 사용한 '그리운 것은 서쪽에 있다' '실산' '길' 등 30여 작품이 전시되어 마치 선화(禪畵)와도 같은 감동과 메시지를 안겨준다. 황남채씨는 전시회에 맞춰 그림과 시를 엮은 시화집 <달빛찾기>도 펴냈다.

살아있는 法語, 살아있는 佛敎史料!

96년판

현대불교신문 합본집 발간

이천만 불자 여러분의 참 대변지, 수행의 길잡이인 '현대불교신문'이 1호에 이어 **합본 '96년판'**을 발간하였습니다.

주옥같은 법문, 불교의 근본 원리를 속 시원히 파헤친 기획물들, 생생한 불교사의 발자취... 이 모든 것들을 손상 없이 잘 간직하고 싶었던 분들, 매주마다 찾아오는 '현대불교신문'을 정말 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셨던 분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셨던 분들은 지금 곧 연락 주십시오. 즉시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 합본집('96년판) : 제 60호(1996. 1. 3) 제108호(1996.12.25)
- 가격 : 50,000원 (발송비 별도)
- 구입신청 : 현대불교신문사 경영관리국
- 전화 : (02)737-8881 팩스 : (02)737-0697

한정된 수량 관계로 선착순 판매 합니다.

(주)현대불교신문사 (대)737-8881

봉

진주 한마음 선원 상량식

행



한마음 진주선원 불사계획안

부처님의 가르치신 은혜를 갚고 모두가 스스로 등불이 되어 자비광명속에 안주케 하고자 「여래의 집」을 마련하여 상량식을 봉행하고자 함을 시방삼세 일체제불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아래와 같이 고합니다.

- 일 시 : 1997년 11월 9일(음 10월 10일) 오전 11:00
- 장 소 : 진주 한마음 선원
- 연락처 : TEL. 0591)746-8163, 44-1321 FAX. 746-7825

진주 한마음 선원 사부대중 삼배 올림